圖協 出版事業의 現況과 展望

崔 昌 均
出 版 分 委 委 員

Ⅰ. 머릿말

圖協에는 많은 專門分科委員會가 있다. 各分科委는 해당분야의 전문인들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그 분야는 도서관과 도서관학의 기본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出版事業이나 그 業務는 이와같은 입장에 있지않다. 더구나 필자는 出版分委의 委員長도 아니다. 다만 委員長 出他로 인한 先任委員일 뿐이다. 따라서 出版分委의 責任的이거나 公式的이 아닌 私見일 수 밖에 없다. 그간 出版分委員으로서의 느낀 바를 적음으로써 회원 여러분에게 出版分委의 事情을 알리고자 한다. 보다 솔직히 털어놓음으로써 회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한다.

Ⅱ. 出版分委의 基本使命에 비추어 본 現況과 問題點

周知하는 바와 같이 出版分委는 圖協 定款 第4條 2項의 『機關誌 및 讀書에 관한 資料의 編刊』에 그 主目的이 있다. 機關誌는 『도협월보』이며, 讀書에 관한 資料란 圖協의 基本目的에 관계되는 모든 出版物일 것이다. 機關誌 및 出版物을 編刊하는 모든 團體의 基本目的은 出版物에 의한 그 組織體의 目的 實現에 있음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圖協의 目的이 各種 圖書館 提携下의 圖書館事業 發展에 의한 文化向上에 있음을 定款 第3條가 明示하고 있다. 이 目的實現을 위하여 各種 分科委員會가 있고 各館種別部會가 있다. 아직 大學圖書館部會가 構成되지 않고 있음이 얼마나 크게 잘못되고 있나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에 責任轉稼같지만 出版分委의 基本任務는 各部會와 分科委가 各己의 目的實現을 위해 出版事業이 必要하거나 弘報의 必要性이 있을 때 그 基本資料를 提供하면 그 것을 編刊하는 技術上의 審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基本立場에서 出版事業의 現況과 問題點을 살펴 보려고 한다.

1) 도협월보

도협의 유일한 기관지로서 현재까지 그 名脈과 命脈을 維持하고 있다. 事實上 出版分委는 『도협월보 편집위원회』의 性格이 짙다. 도협월보의 중요성은 새삼스러이 거론하지 않아도 이것이 유일한 우리의 情報疏通의 媒體임을 否認할 수 없다. 單純한 社報와 같은 弘報誌일 수도 없고, 學術誌일 수도 없고, 더구나 雜誌일 수도 없으면서 그 어느것도 아닐 수 없는 이른 바 機關誌이다. 機關誌의 生命은 그 機關構成員間의 意思疏通과 그 機關의 對外弘報에 있다. 두가지 基本目標가 있으나 도협월보의 對外가 되는 對象은 圖書館有機關(政策擔當)과 圖書館利用者이다. 有關機關員을 위한 圖書館發展策에 대한 우리의 主張은 끊임없이 해왔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일반 도서관이용자를 위한 특별한 計劃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試圖되지 않았다.

對內的 구실은 어떠한가? 첫째 구실인 도협소식과 도서관동정 뉴스의 전달에 있어서 매호에 실리고는 있으나 도서관동정의 뉴스는 紙面이 없어서가 아니라 提報가 활발치 못하여 자세히 전달되고 있지 못하다. 두번째 구실인 현장실무상의 문제제기와 그 해결을 위한 의견제시에 있어서 실무자와 도서관학자들의 활발한 참여가 없음으로해서 그 소임을 못하였다. 외국의 최신 도서관학 이론을 소개하여 현직교육적 역할을 함에 있어서도 미흡하였다.

거의 매월의 편집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필자와 주제를 선정해도 필자가 원고를 주지 않으며, 더구나 자발적 참여는 한건도 없다. 물론 충분한 원고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의 의상이 되는 재정형편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지만 도서관인의 헌신적인 노력이 아쉬워진다.

2) 文獻情報學硏究

『도협월보』의 한 구실이었던 최신 외국도서관학 소개나, 학술논문 原稿難에 있어서 主筆者인 大學의 敎講師들이 原稿料보다는, 敎授의 業績評價에 있어서 『도협월보』가 非學術專門誌임으로 除外되는데 더 큰 원인이 있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飜譯專門誌로서 季刊의 『文獻情報學硏究』를 刊行키로 하였다. 財政上의 問題

때문에 筆者가 약간의 部數를 消化시키는 責任을 지우는데도 不拘하고 一年分인 4號까지를 續刊할 수 있게 한 譯者 여러분에게 감사할 따름이다. 다만 이 刊行物이 會員 各者에게 無料나 저렴한 가격으로 提供할 수 없는 財政形便이 안타깝다.

3) 敎材編刊

敎材開發은 原則上 敎育調査分科委의 所管事項이다.

出版事業의 財政確保와 圖書館學敎育의 效率을 위해서 敎材開發은 圖協의 重要한 問題의 하나다. 圖書館學敎育은 圖書館·學界의 發展의 基礎이기 때문이다. 아직도 우리의 實情은 各級 圖書館學敎育의 敎科課程이나 敎育內容(敎授要目)의 統一이 되어있지 않다. 반드시 統一할 必要가 있는 것도 아니고 大學別 特色이나 專門大와 學部의 特徵은 장려할 事項이지만 基本科目에 있어서는 課程別로는 다르되 같은 課程에 있어서는 統一的 要素가 不可避하다. 그러나 現實은 그렇지 않음으로써 敎材開發은 어려운 實情이다. 圖書館學敎育內容은 敎授가 決定하는 것이지만 現場人도 主張할 權利와 義務가 동시에 있다고 여겨진다. 다행히 敎育調査分委와 韓國圖書館學會 共同으로 세미나가 開催될 豫定이라니 調整의 실마리가 풀리면 敎材編纂委員會를 構成할 契機가 될 것으로 본다. 하여간 이와같은 理由로 하여 最近 開發된 敎材들은 亞細亞文化社에 의하여 出版되었다. 여러 學部課程이 있지만 한 學年이 200명 內外인데 모두 採擇한다 할지라도 收支打算上의 問題가 內在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된다면 出版分委는 이를 刊行할 義務가 있다고 생각된다.

多幸히 專門課程에서 敎材編纂委員會를 構成하여 우선 첫 事業으로 『圖書館學槪論』의 原稿를 作成하여 版權을 委件받았다. 專門課程의 學生數로 보아서 充分한 商業性이 있는데도 不拘하고 本協會에 委任한 것이다. 이러한 精神이 이어졌으면 싶다.

鄭駉謨敎授의 『一般參考文獻槪說』이 처음으로 本委에 의하여 刊行되어 2種의 敎材가 開發된 셈이다.

4) 其他 出版事業

以上의 刊行物以外에 最近事業으로서는 ① 國際標準書誌記述法(M·S 2種) ② 韓國圖書館協會三十年史를 刊行하였다.

한동안 活潑히 進行되던 飜譯叢書의 發刊이 거의 中斷된 것이 큰 아쉬움이다. 그러나 이 問題 역시 原稿가 없다.

Ⅲ. 出版事業의 計劃과 展望

위에서 出版事業의 槪況과 그 문제점을 개략적으로 밝혔다. 가장 큰 문제로서 財政難과 原稿難을 例로 들었다. 그러나 兩者는 密接한 관계가 있다. 原稿料가 高價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原稿를 確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版權이나 原稿料의 값어치의 伸張을 위해 노력해야 할 任務가 出版協會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圖協에도 있다고 볼 때나 出版費라는 實際的인 必要에 의해서도 財政의 確保는 時急한 문제이다. 圖協의 財政이란 會費에 의존하는 것인데 會費의 引上에는 限界가 있고 出版事業의 成敗는 各分委나 部會의 活潑한 活動에 달려있다고 볼 때 이들의 活動도 결국은 財政問題에 부딪치게 된다. 그런데 會費 밖의 수입이란 현재로서는 出版事業밖에 없다. 따라서 出版分委의 基本使命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商業性이 있는 出版物의 企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다. 商業性이 있으면서도 도서관이나 文化發展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出版해야 한다는 결론을 쉽게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이왕이면 다홍치마이며, 도서관의 일차적 목표인 독서인구(이용자)의 확대라는 立場에서 出版事業의 基本을 잡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다행히 초중등학교에서 독서지도가 의도적으로 실시된 조짐이 보이고 있으며 현재도 상당히 실시되고 있으나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일선교사들이 당황하고 있다. 이에 관한 연구에 의하여 그 지침서라도 만들면 一擧兩得的 效果가 있고 이는 圖協의 基礎的 任務이기도한 것이다. 原則上 이러한 硏究는 敎育調査分委의 所管이지만 特別히 讀書指導分科委를 구성할 수도 있고, 現在의 出版分委를 出版 및 讀書分科委로 再構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일선교사, 교육심리 및 교육학자, 독서지도전문가, 도서관학교수, 아동문학가등을 망라한 特別機構를 敎育調査分委나 出版分委에 설치할 수도 있다. 또한 書誌分委도 資料選定이라는 입장에서 無關하지 않기 때문에 이 問題의 主體에 관해서는 分委長會議를 거쳐 理事會가 決定할 성질의 것이다.

좌우간 一次的인 出版事業은 『讀書指導』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고 筆者가 出版分委의 會議때마다 主張한 사실을 밝혀 둔다. 即 ① 初中高等學校別 標準讀書資料目錄 및 解題 ② 初中高等學校別 讀書指導指針書의 發刊이다. 우선 國民學校用을 編刊해야할 것이다.

敎材의 出版은 위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여러가지 與件이 造成되고 있기 때문에 樂觀的이며, 飜譯專門誌인 季刊의 『文獻情報學硏究』도 順調로울 것으로 展望된다. 이것이 續刊되면 再編輯하여 飜譯叢書와 같이 單行本이 될 수 있으며 敎材도 될 수 있게 企劃될 것이다.

圖書館實務資料의 出版은 各分委에서 進行되고 있는 ① 圖書館用語集改訂版 ② KDC改訂版 ③ 韓國目錄規則改訂版等이 完了되는 대로 最優先的으로 出版될 것

圖書館實務便覽의 改定版은 原稿의 分量이나 出版經費 등의 問題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가장 큰 관심거리인 『도협월보』는 위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即 出版委員이 筆者가 되어야 하는 原稿難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叙上한 바와 같은 出版事業에 의한 財政確保가 先決問題*라고 보아지지만 會員 여러분의 희생적 참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現場에서의 問題를 提起하는 것만으로도 原稿가 되는 것이니까 現場人들이 實務上의 問題點들을 정리하여 提供하고 이에 대한 解決方案을 研究에 從事하는 敎授會員이나 現場先驗會員들이 提示하는 産學協同이 이루어지도록 회원 각자가 노력해서 정말로 필요한 회지가 되게 하여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各分科委員이 懸案問題를 會員들에게 公開하고 의견을 묻는 窓口구실도 해야겠다. 『도협월보』가 形式만의 機關誌가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必要不可缺한 會員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智慧를 必要로 하는 것임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問題의 提起가 없고, 討論이 없고, 發表가 없고, 創意가 없고, 批判이 없고, 問題解決을 위한 꾸준한 努力이 없는 곳에 무엇이 있겠는가? 現場은 現場대로 研究는 研究대로 따로있고, 理論과 實際가 別居하는 우리의 現實을 『도협월보』를 통해서 打開하려고할 때에 『도협월보』는 生命있는 機關誌가 될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보, 국회도서관보와 같은 기관지와는 다르게 인식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도협월보』는 우리의 얼굴이다. 제날짜에 출간하지 못하고 내용이 빈약하고, 도서관·학계의 소식도 자세히 전하지 못하고 따라서 舊聞이 되는 일차적 責任은 出版分委에 있다. 그래도 누구 하나 批判해 주지 않는 風土도 問題가 있다. 글로 써서 『도협월보』에 게재했을 때 비로소 不評이 아니라 批判이며, 私見을 넘어서 公意가 되는 것이다. 各分委의 會議抄錄이 도협월보에 게재되며 참석자명단도 실린다. 열심히 참가하는 위원도 있고 한번도 참석치 않는 위원이 있다. 그렇게 해도 잘 되어나가면 모르겠지만 出版分委는 出版할 資料(原稿)까지 만들어 낼만큼 모든 분야에 專門的이거나 權限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風土가 개선되지 않는 限 『도협월보』의 展望은 매우 絶望的이다. 지금도 기다려지고 바라는 『우리의 도협월보』라는 생각을 가진 회원은 몇이며 누구인가?

Ⅳ. 맺음말

이상과 같이 필자나름대로 출판사업의 개황과 문제점, 계획과 전망을 개관하였다. 마치 出版分委는 出版事業이 不振한데 대한 아무런 責任이 없는 것처럼 서술하고, 各分委나 會員들의 積極的 參與가 不足했음이 主原因인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결코 責任轉嫁만은 아니다. 그리고 各分委들이 財政的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희생적으로(無報酬) 所任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事實도 알고 있다.

다만 *出版分委의 性格이 會員과 各分科委의 原稿(資料)*를 出版하는 것이지 出版資料를 스스로 開發하는 萬能機構가 아님을 分明히 하다보니 結果的으로 그렇게 된것임을 밝혀야겠다. 또한 스스로 出版資料를 開發하지 않으면 안될 立場에 있음도 公表하고 싶었던 것이다. 圖協의 모든 分科가 그렇지만 委員들이 勤務時間을 割愛하여 일하고 있다.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하나 둘이 아닐 것이다. 이번에 이러한 特輯을 내어서 各分委의 事情을 會員에게 알리려고 企劃을 세웠다. 이 機會에 出版分委의 事情을 솔직히 말하다보니 出版分委를 辯明하고 各分委나 會員들의 積極 參與의 必要性을 强調하게 되었다. 事實上 出版事業의 成敗는 出版資料의 確保이며 出版費의 確保이다. 多幸히 出版된 資料들은 會員圖書館들의 協調로 黑字를 보고있다. 그러니까 出版資料가 없는 것이 더욱 안타까운 것이다. 出版事業의 黑字를 出版資料開發費——各分科委事業費로 再投資할 수 있도록 相互有機的인 관계를 가져야한다고 말하려는 것이다.

거듭 중복되는 말이지만 우리의 얼굴인 『도협월보』를 生命力있는 情報疏通誌로 가꾸고, 現場實務에 必要한 圖書를 編刊하고, 圖書館學敎育의 基本敎材를 開發하고, 讀書人口를 擴大하기 위한 圖書館敎育——讀書指導資料를 刊行하는 일은 出版分委 單獨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圖協의 核心的이고도 基本的인 業務이다. 이러한 事業을 통하지 않고서는 圖書館과 圖書館學의 發展이 있을 수 없으며, 이것의 發展이 없이는 韓國文化의 發展에 크게 이바지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確認하자는 것이다. 이번 各分委의 特輯을 계기로 보다 活潑한 批判的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서 日就月將하는 우리의 모습을 內外에 보였으면 싶다.

책속에 있는 길
읽으면 나의 길
독서하는 국민
발전하는 국가